



"어미한테 한 말은 나고 소한테 한 말은 안 난다"

뜻: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비밀은 쉽게 퍼질 수 있으니, 말은 항상 조심해야 한다는 뜻이에요.

이 속담과 관련있는 말 말조심 · 비밀 · 관계

바른 글씨 따라쓰기

중심 십자선을 기준으로 자음과 모음의 균형을 맞춰 써 보세요

1단계 보기 바른 글씨의 모양과 획을 눈으로 살펴보세요

어	미	한	테	한	말	은	나	고
소	한	테	한	말	은	안	난	다

2단계 따라 쓰기 열린 글씨를 따라 연필로 천천히 써 보세요

어	미	한	테	한	말	은	나	고
소	한	테	한	말	은	안	난	다

3단계 혼자 쓰기 1·2단계를 종이로 가린 뒤, 속담을 떠올려 써 보세요

다 쓴 뒤 선생님과 확인해요



웹에서 더 알아보기 스마트폰으로 QR을 비추면 바로 열려요

재미있는 속담 이야기와 퀴즈가 기다려요!

속담이 일상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생생한 이야기와 해설을 웹에서 확인해 보세요.

초성 퀴즈 [오 □ ㅎ 테] [ㅎ] [□ ○] [ㄴ ㄱ] [ㅅ ㅎ 테] [ㅎ] [□ ○] [○] [ㄴ □]

웹에서 보기

